

좁은 골목길이 낭만의 공간으로, 춘천시 효자1동

강승진 | 춘천시문화재단 정책기획팀장

주민조직 '낭만골목추진위원회'와 춘천시문화재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낭만골목'은 춘천시 효자1동을 중심으로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마을공동체 복원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효자동은 강원대학교 인근 부지까지 아우르는 큰 행정구역이었지만, 2동과 3동으로 분리되면서 지금은 춘천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남부사거리에서부터 춘천 수협, 별당막국수까지를 아우르는 지역이다. 효자1동의 중심지인 문화예술회관 일대는 원래 이씨 문중묘가 있던 야트막한 야산이었는데 한국전쟁 뒤 피난민들이 하나둘 산에 판잣집을 지으며 들어섰고, 이후 문화예술회관이 입지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곳은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축제극장 몸짓, 전국에서도 유명한 어린이도서관인 담작은도서관 등 어느 마을보다 문화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곳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발이라는 논리에 밀려 일부 지역이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과 보

존 사이에서 마을 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고 점차 효자1동의 정겨운 옛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급기야 마을 공동체는 무너져갔다.

골목을 이야기하다

하지만 효자1동에는 아기자기하고 정겨운 골목들이 남아 있다. 이 골목을 걷고 싶다면 골목 어귀에서 놀았던 옛 추억이 떠오르곤 한다. 골목 어귀에서 꼬맹이들이 숨바꼭질을 할 것 같고 또 다른 골목 어귀에서는 여자 친구 집을 어슬렁대는 청년의 모습이 그려지고 또 다른 한쪽 집 앞에서는 마을 아낙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며 음식을 나누는 정겨운 모습들이 그려진다.

그러나 이제 마을에는 대부분 연세 많으신 어른들만 살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은 외곽의 신시가지 아파트로 떠나 버렸다. 어르신들은 어서 이곳도 재개발이 되어 보상을 받고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하지만 사실 예전의 정겹던 마을 모습을 더 그

리워했다.

춘천시문화재단에서는 효자1동 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역할을 찾고 싶었다. 문화재단이 위치한 이곳에서부터 문화와 예술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예술가 및 청년들과 함께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어나가고 싶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춘천의 골목을 이야기하고, 골목에 낭만을 불어넣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져가는 춘천의 아름다운 골목을 지키고 춘천다운 모습이 물씬 묻어나는 마을과 동네를 지키고 싶었다. 문화예술을 보급하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면 떠나는 마을이 아닌 들어와 살고 싶은 마을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과 만나 골목길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골목길에 관심을 가졌다.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예술가와 청년, 마을로 들어가다

춘천시문화재단에서는 지역의 예술가들을 모아 생활문화, 생활예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효자1동에 대한 사업을 기획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다. 예술가와 청년들은 골목을 다니며 사업을 홍보했고 문화재단은 효자1동의 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냉담했다. 이 사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개발로 인하여 정든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며 노심초사하셨다.

문화재단은 주민들의 반응을 보며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고민했으며, 당초 사업계획 초기에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이해를 위해 예술가, 청년들과 함께 무작정 마을을 청소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를 주웠다.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자 매일 골목을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 가꾸어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마을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렸다. 드디어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럼 한 번 사업을 해보자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문화를 담은 마을, 낭만이 있는 골목을 만들기 위한 ‘낭만골목’ 사업설명회가 준비되었다.

사람꽃, 웃음꽃, 마음꽃, 낭만골목에서 활짝!

가장 먼저 생활문화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마을 리더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을 통해 생활문화공동체의 개념과 다양한 사례들을 듣고 마을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를 논의해갔다. 그리고 마을대표들과 문화재단, 효자1동 주



생활문화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 개최된 포럼



낭만골목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열린 한마음 기원제



아름다운 벽화로 재탄생한 담장

민자치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낭만골목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낭만골목추진위원회는 이어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을 마을 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준비하였다.

2012년 8월 17일 오전 11시, 마을 입구에서 신명 나는 풍악소리와 함께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마음 기원제’를 열고 낭만골목사업의 순조로운 출발과 성공을 기원하였다. 같은 날 저녁에는 마을

에 위치한 축제극장 ‘몸짓’의 객석을 주민들로 꽉 채우고 생활문화공동체의 사업 취지와 낭만골목사업에 대한 소개, 축하공연 등 문화프로그램이 결합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주민설명회 및 낭만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성황리에 개최된 토크콘서트에서는 주민들이 다함께 재미있는 공연을 관람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영상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활기차고 아름다운 효자골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낭만골목사업 1년차에는 ‘주민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공동체 발아’를 사업목표로 삼고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예술빛으로 물든 ‘낭만골목 숨은 예술 찾기’, 주민들의 생활문화 일상화를 위한 ‘효자골 사랑방 문화센터’, 지역주민들의 마을 잔치이자 춘천 문화예술인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문화장터 둥구미’, 마을의 자원을 발굴하고 이야기를 찾아가는 ‘마을지도 제작과 낭만골목투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였다.

‘낭만골목 숨은 예술 찾기’는 지역의 예술가들이 벽화와 설치작품 등을 통해 주민과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생활문화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프로그램이었다. 마을에 내려오는 이야기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설치한 벽화와 작품들은 마을 골목길의 풍경을 바꾸어놓았다. 회색빛 콘크리트 담장은 원색의 아름다운 벽화로 뒤덮였고, 호박돌과 콘크리트로 만든 옛 울타리에는 담쟁이덩굴과 난이 분점했



사랑방 문화센터에 모인 어르신들



마을주민들의 축제의 장이 된 생활문화장터 둥구미

다. 음침했던 골목은 아기자기한 멋이 숨 쉬는 예술 골목, 낭만골목으로 다시 태어났다.

‘효자골 사랑방 문화센터’는 같은 효자1동에 살지만 서로 잘 모르던 주민들이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쫓아 어울리며 왁자지껄 웃음꽃을 피우는 공간이 되었다. 또한 효자어울림음악당, 효자동 골목 이야기, 리폼공작소, 효자골 극장나들이단, 효자손 생활자기·예술자기 만들기 등 5개의 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효자골 극장나들이단은 바로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문턱이 높았던 문화예술회관과 축제극장 몸짓 등의 문화시설이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특히 ‘생활문화장터 둥구미’는 마을주민들이 생활문화공동체사업에 대해 가졌던 경계심을 무장해제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생활문화공동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마을의 문을 열지 않았던 주민들이 장터를 통해 이웃사촌들과 어울려 한바탕 축제의 장을 치르자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불편함 등이 해소되고 우리 마을도 이렇게 재밌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의 변화가 생

겼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생활문화공동체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이는 2년차 사업을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지도 제작과 낭만골목투어’는 지역의 청년들이 만든 공정여행 사회적기업 ‘동네방네’에서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의 자원과 이야깃거리를 마을지도로 만드는 사업으로, 지역청년과 마을주민들과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러한 사업과정을 통해 마을주민들은 스스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으며, 마을공동체사업이 처음 진행된 춘천 지역사회의 관심도 끌어내었다. 지역사회의 관심은 사업이 진행된 약 6개월 동안 70여 회의 신문방송 노출횟수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1년차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주민 스스로 ‘우리는 어떤 마을에서 살고 싶은가’를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주민 스스로 낭만골목추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더 많은 주민들과 2년차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 결과 빚어진 일로 판단하고 2013년 1분기는 서로를 이해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사업계획을 합의해가는 과정으로 삼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공동체 사업에 대해 조금 더 학습하게 되었으며, 당초 문화재단이 세웠던 2년차 사업계획을 백지화하고 주민들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하

다짐하며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갈등 속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다

그러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변화는 2년차 사업을 준비하는 동안 문화재단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1년차 사업을 통해 자신감을 갖게 된 주민들이 이제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니 문화재단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이다. 2년차에는 주민이 주체가 된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마을 리더 및 활동가 발굴·육성을 통한 주민 주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세운 문화재단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민들이 아직 생활문화공동체에 대한 개념과,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방향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마을주민을 우선

게 되었다. 그리고 사업을 주민 주도로 진행하고 문화재단은 행정과 홍보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역할을 분리하였고, 3년차가 되는 2014년부터는 모든 사업과 역할을 주민들이 직접하고 문화재단은 성과 관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남만골목추진위원회로 확대해갔으며, 단체 등록 및 마을총회를 통해 향후 마을법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까지 단계별로 발전해갈 비전을 만들어나갔다.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효자마을대학과 주민주체사업

문화재단과 남만골목추진위원회는 2년차 사업을 백지화한 가운데 효자마을대학을 열어 주민들 스스로 학습하며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

고 그 사업을 중심으로 2년차 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의 사업비는 주민들 스스로 세운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하고 문화재단은 별도로 2,500만 원의 예산을 효자마을대학 운영에 지원하기로 했다.

효자마을대학은 일방적 교육이 아닌,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학장, 교수이면서 동시에 학생이 되고 마을이 대학이라는 모드로 운영되었다. 커리큘럼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자원 탐색, 문제 발굴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써보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타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례도 현장학습을 통해 돌아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이주 등으로 인해 무너진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여러 사업계획을 세웠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 곳곳에 테마를 설정해 마을을 꾸미는 마을환경 개선 프로젝트 ‘테마가 있는 골목

길’, 마을사랑방 역할을 하며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자골 밥집’, 주민들의 재미 있는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효자마을 이야기책’ 등 세 개의 주민주체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테마가 있는 골목길’은 ① 집집마다 마을소식지를 전달받는 우체통을 직접 만들어 다는 ‘가가호호 우체통’, ② 마을 초입에 청개구리 전래동화를 통해 효의 의미를 찾도록 한 ‘청개구리 이미지 메이킹 (굴개굴개 청개구리)’, ③ 잊혀진 골목 놀이문화를 끄집어내 골목놀이터에서 세대 간 소통을 시도한 ‘골목대장’ 등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효자골 밥집’은 마을주민 간 정을 나누며 밥을 함께 먹고 마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자는 데서 출발하였다. 평상시에는 낭만골목추진위원회에 속한 솜씨 좋은 주민들이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으로 운영된다. 국수 3천 원, 백반 4천 원 하는 ‘착한 식당’으로 연중 어머니가 정성스레 차린 집밥 같은 밥을 먹을 수 있다. 수익금은 마을공동체 사업비, 독거노인 도시락 나눠주기 사업 등



효자마을대학 수업의 한 장면



효자골 밥집 개점식

주민들을 위해 지원될 것이다. 식당이면서 사랑방으로 사용되는 80여m²의 2층 공간은 낭만골목추진위원장이 선뜻 내놓았다. 주민들은 직접 식탁과 의자를 만들고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관련 사진들을 전시해놓았다.

‘효자마을 이야기책’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마을사람들을 인터뷰한 이야기를 담았다. 선글라스를 끼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긴 백발을 휘날리는 ‘멋쟁이 어르신’과 한평생 옷을 수선해온 이정원 할머니 등의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준다. 또 책에는 효자마을의 상징인 효자상의 유래와 둥구미 장터, 담작은도서관 등 낭만골목 구석구석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주민 주도 주체사업들의 성과는 2013년에도 어김없이 진행된 둥구미 장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개되었으며, 지난 12월 7일에는 마을주민이 십시일반 힘을 합쳐 식당을 운영한 효자골 밥집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마을 어르신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자축행사를 끝으로 2년차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효자마을 이야기책 출판기념회

춘천의 대표적 도시재생 모델로 평가받는 ‘낭만골목’ 사업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낭만골목 사업이 춘천 도시재생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자체마다 수십억 원을 들이는 각종 마을 관련 사업도 있지만, 2년 동안 1억 5천만 원 남짓한 예산으로 아름다운 생활공동체를 복원하고 마을의 환경도 개선하며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심의 후미진 달동네였던 효자1동에 활기가 돌고 주민들의 표정에 생기가 역력하며 낙후되어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되살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지자체와 주민들의 공동된 책무다. 이에 옛 도심 골목 등 우리 주변의 잊고 있었던 것들을 재발견하여 마을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자생적인 생활문화공동체를 만들어보고자 한 것이 바로 낭만골목 효자마을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 프로젝트가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고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 중심이 되는 춘천 도시재생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앞으로 낭만골목 효자마을의 재생은 계속 진화할 것이다. ☺